

01. ③	02. ⑤	03. ①	04. ④	05. ④	06. ②	07. ④	08. ④	09. ④	10. ③
11. ①	12. ①	13. ②	14. ②	15. ①	16. ⑤	17. ④	18. ②	19. ③	20. ⑤
21. ④	22. ③	23. ①	24. ⑤	25. ②	26. ④	27. ⑤	28. ⑤	29. ②	30. ③
31. ①	32. ①	33. ⑤	34. ④	35. ②	36. ③	37. ④	38. ⑤	39. ⑤	40. ③
41. ③	42. ②	43. ⑤	44. ③	45. ①					

[1~3] 화법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발표 첫 부분의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한다는 발언에서 발표의 목적은 밝히고 있으나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발표자가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보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광해군 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를 통해 이동 가능한 산대가 있다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이 명칭은 『성종실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를 통해 예산대라는 명칭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발표 주제와 관련된 ‘산대’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라는 발언과 ‘(청중의 대답을 듣고)’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매체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㉞은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레바퀴’와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가 잘 드러나 있어 인형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3>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㉞은 예산대의 모습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자료 1>이 적절하나, 이는 예산대의 제작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② ㉞

자료 제시 이후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라는 물음에 대한 정보를 <자료 3>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에 활용되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의 제시 목적이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크게 보여주려는 것이므로 <자료 2>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예산대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④ 예산대 인형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대 위의 인형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에 <자료 2>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답변 내용이 ‘신선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에 대한 것으로 발표에 제시된 예산대에 있는 여러 인형과 연관된 질문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라는 답변 내용을 통해 인형들의 의미를 묻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발표 내용에서 전통극 무대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③ 발표 내용 중 ‘예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라는 말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답변 내용에서 ‘산’과 ‘신선의 세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발표 내용에서 예산대에서 인형극이 행해졌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답변 내용에서 사람이 직접 예산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⑤ 발표 내용에서 『봉사도』가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보여 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답변 내용에서 봉사도에 있는 예산대 외의 다른 그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4~5] 화법, 작문

4. 말하기 목적 추론

정답해설 : [A]에서 사서는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라는 질문을 통해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도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더 알고자 보충 질문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학생은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라는 사서의 답변이 자신의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 사서는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는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니다. ③ [B]에서 학생이 두 번째 질문을 한 이유는 사서의 답변이 목적에서 벗어나서가 아니라 사서의 첫 번째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점이 생겨서이다. ⑤ [A]에서 학생은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B]에서 사서가 학생의 질문 중 일부 내용을 반복하여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5.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면담 중 사서의 5번째 말에는 '도서관에 직접 와서 ~ 신청서를 작성'이라는 책편지 서비스 신청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학생이 쓴 글에서는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이 쓴 글에서 '인자한 인상의 사서 선생님'이라고 하여 면담에서 받은 사서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드러내 도서관에 대한 호감을 높이고 있다. ② 글에서 '진로 탐색이나 교우 관계에 고민이 있는 한국고 학생들'로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알리고 있다. ③ 면담에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사서의 답변 중 '도서관은 단순히 ~ 책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내용을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라는 부제로 제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면담에서 학생이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는 주민들의 반응을 언급하였는데 글에서도 이를 제시하여 도서관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6~7] 화법, 작문

6.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 2는 옥수수 싹이 나오길 기다리며 '조급해했던' 마음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학생 1은 옥수수 씨앗을 심으며 '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선생님'의 조언을 계기로, 학생 2는 '선배'의 조언을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다. ③ 학생 1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학생 2는 '왜 그렇게 조급해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④ 학생 1은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라는 문장을 다시 인용하며, 학생 2는 자신이 원

했던 ‘씩이 어느새 올라와’ 있는 상황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설렘’에서 ‘투덜댐’으로, ‘투덜댐’에서 ‘반성’으로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생 2는 자신의 조급해하는 태도를 교우 관계에서도 조급해하며 서운해했던 경험과 연결 지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7.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에서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신과 학생 2의 공통된 생각보다는,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을 통해 결과를 얻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자신만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생 2의 글에 의문을 제기하며 학생 1의 생각을 묻고 있다. ② ㉢에서는 수영을 배울 때 성급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어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학생 2의 글에 공감하고 있다. ③ ㉣에서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학생 2의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고 있다. ⑤ ㉤에서는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 ‘서로의 생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8~10] 작문

8. 내용 조직 전략의 적절성

정답해설 :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문단에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실험을 예로 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문단에서 확증 편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를 글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으나 확증 편향의 원인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확증 편향의 문제점을 2문단에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한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3~5문단에 제시하고 있으나 ‘방안의 한계’와 ‘보완할 방향’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사회적 쟁점을 두고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은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립을 통해 ‘집단의 의견’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4문단에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내용은 ‘집단의 의견’도 ‘비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확증 편향’이 ‘비판적 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확증 편향으로 인한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나)의 4문단에 제시된 내용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므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보기>의 내용은 집단의 의견도 비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5문단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통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비판하는 주장의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⑤ 확증 편향의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는 답지 진술은 (나)처럼 확증 편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문두에서 ‘확증 편향’이 아닌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고 전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갈릴레이가 천동설에 맞서 지동설을 펼친 것이 확증 편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글쓴이는 두 문장의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따라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를 추가하여 앞 문단과의 연결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왜냐하면 고려의 ~ 있기 때문이다.’를 추가하여 제시된 방안의 긍정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④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제에서 벗어나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글에서 삭제하였다. 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찰스 다윈’의 사례를 근거로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15] 문법

[11~12] 조사 ‘에’와 ‘에서’의 역사적 형성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에서는 먼저 현대 국어의 조사 ‘에’와 ‘에서’의 의미 및 기능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이고, 그러한 차이의 원인을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셔’의 형성 과정에서 찾고 있다. 다음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에서’ 계열의 조사가 쓰일 자리에 ‘에’ 계열의 조사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이 둘의 의미가 [지점]과 [공간]으로 분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이듯이 중세 국어에서도 ‘에서’ 계열의 조사가 주격 조사로 쓰였음을 설명하는 한편,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께서’는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결합한 것으로서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씩셔’가 변화된 결과임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에’와 ‘에서’의 의미 및 기능 차이에 대한 통시적 분석

1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중세 국어에서는 ‘애/에/예, 이/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는 진술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가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에서 ‘에’ 앞에 붙은 ‘서울’이 ‘에서’ 앞에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명사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느냐, [공간]으로 인식되느냐에 따라 ‘에’와 ‘에서’가 달리 쓰인다. ③ 중세 국어에서 ‘애셔/에셔/예셔, 이셔/의셔’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는 진술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이시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에’에 결합되면서 ‘에셔’로 나타나는데, ‘이셔’의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는 진술을 통해 ‘셔’가 지점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지문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중세 국어 ‘에셔’는 현대 국어 ‘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그 지역에서’는 부사어로, ‘에서’는 주격 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정부에서’는 집단을 의미하는 주어로, ‘에서’는 주격 조사이다. ③ ‘할머니께서’는 주어이므로 ‘께서’는 주격 조사이다.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④ 현대어 풀이 중 ‘관청에서’가 주어로 쓰였음을 볼 때 ‘그 위에서’ 역시 주어이며 이때의 ‘에서’는 주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⑤ 현대어 풀이가 ‘부처님으로부터’이므로 ‘부터’는 부사어이고, ‘씩셔’는 부사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씩서’가 쓰였음을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는 받침을 그대로 옮겨 뒤 음절 초성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이를 연음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안팍을’을 [안파글]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ㄱ’을 ‘ㄱ’으로 바꾼 뒤에 연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겹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는 겹받침의 앞 자음은 음절의 종성에서 발음되고 겹받침의 뒤 자음은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발음된다.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겹받침의 뒤 자음만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찰흘기]로 발음해야 한다. [찰흐기]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고 연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③ ‘넋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겹받침의 뒤 자음만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넉씨]로 발음해야 한다. 이때, ‘시’가 아닌 ‘씨’로 발음되는 것은 ‘넉’의 ‘ㄱ’에 의한 된소리되기의 영향이다. [너기]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고 연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④ ‘끝을’은 연음하여 [끄틀]로 발음해야 한다. 구개음화는 ‘ㅣ’나 반모음 ‘ㅟ’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기 때문에 ‘끝을’과는 무관하다. ⑤ ‘숲에’는 연음하여 [수페]로 발음해야 한다. 이때 ‘숲에’를 [수베]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뒤에 연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거센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ㄴ’, ‘ㅈ’이 ‘ㅎ’을 만나 각각 거센소리 ‘ㅋ’, ‘ㅌ’, ‘ㅊ’, ‘ㅈ’로 발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숲에’와는 무관하다.

14.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떠넘기면’의 어간은 ‘떠넘기-’이다. ‘떠넘기-’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뜨-’와 어근 ‘넘기-’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한다. 또한, ‘넘기-’는 다시 어근 ‘넘-’과 접사 ‘-기-’로 분석되기 때문에 ‘떠넘기-’는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도 충족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내리쳤다’의 어간은 ‘내리치-’이다. ‘내리치-’는 어근 ‘내리-’와 어근 ‘치-’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한다. 그러나 ‘내리치-’는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헛돌았다’의 어간은 ‘헛돌-’이다. ‘헛돌-’은 접사 ‘헛-’과 어근 ‘돌-’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 또한 충족하지 못한다. ㉡ ‘오간다’의 어간은 ‘오가-’이다. ‘오가-’는 어근 ‘오-’와 어근 ‘가-’로 분석되기 때문에 ㉢은 충족하지만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을 충족하지 못한다. ㉣ ‘짓밟혀도’의 어간은 ‘짓밟히-’이다. ‘짓밟히-’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짓밟-’과 접사 ‘-히-’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하지 못한다. ‘짓밟-’은 다시 접사 ‘짓-’과 어근 ‘밟-’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짓밟히-’는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은 충족한다.

15.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겹문장은 ‘날씨가 춥다’가 관형절로 안겨 ‘날씨’를 꾸며주므로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때 안긴절의 주어 ‘날씨가’는 생략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제시된 겹문장은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가 관형절로 안겨 ‘동생’을 꾸며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 제시된 겹문장은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가 부사절로 안겨 ‘먹었다’를 꾸며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 제시된 겹문장은 ‘날씨가 춥다’가 간접 인용절로 안겨 있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 제시된 겹문장은 ‘형은 물을 마셨다’와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가 연결 어미 ‘-지만’을 통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16~20] 문학

[16-20] 고전 시가 - (가) 정극인, ‘상춘곡’ / (나) 이이, ‘고산구곡가’

(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을 사임하고 향리로 돌아가 만년을 지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정신을 노래한 가사로,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묻혀 고고하게 살아가려는 내면적 의지와 이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춘경(春景)이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잘 묘사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에 동화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설의법, 의인법, 대구법, 직유법 등의 표현 기교와 고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은일지사(隱逸之士)의 유유자적한 생활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주제] 봄의 완상(玩賞)과 안빈낙도

(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고산 석담에 정사를 짓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며 후진 양성에 전념할 때 지은 연시조이다. 송나라 주자의 「무이도가」를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1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자연 풍경

에 대한 묘사를 중시하여 각 연마다 풍경을 담아 노래하였다.

[주제] 자연에 대한 예찬과 학문을 깨우치는 즐거움

1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도화행화’, ‘녹양방초’ 등의 자연물을 통하여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도 ‘벽파’와 ‘곶’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청상’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눈’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에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에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와 (나)는 자연물이나 공간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 역사적 인물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나)의 ‘주자’는 역사적 인물로 볼 수 있으나, 그를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㉞은 ‘사람들이 경치가 좋은 곳을 모르니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미로, 화암의 늦봄 경치와 계곡의 절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㉞은 ‘흥진(속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과는 다른 자신의 자연 친화적인 삶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으므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② ㉞은 이웃사람들에게 산수 구경을 권유하는 내용이지 그들을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다. ③ ㉞은 술동이와 비었으면 자기에게 알리라는 내용으로,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거나 자신과 뜻을 같이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⑤ ㉞은 직접 와서 살펴보지 않으면서 볼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세속의 경박함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18.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는 화자가 느끼는 봄의 흥취를 새에게 투영한 감정 이입으로 볼 수 있다. 새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넋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에서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고 있음을,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셔라’에서 스스로를 풍월주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 친화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볼 수 있다. ③ ‘답청으란 오늘 흐고 욱기란 내일 흐새 / 아춤에 채산흐고 나조히 조수흐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느끼는 물아일체의 심리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청류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 | 로다 / 무릉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를 통해 화자가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연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봄의 경치에 대한 화자의 감흥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화자가 앉아서 ‘한중진미’를 느끼는 공간이고, ㉡는 술을 마시며 일출을 즐기는 공간이다. ㉢와 ㉣가 주위의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의 거처이며, 화자는 이곳에서 출발하여 ㉢와 ㉣로 이동하고 있다. ② ㉢와 ㉣는 화자가 은거한 ㉠을 구성하는 장소로, 각각 구곡 중의 하나이다. ④ ‘벽계수 얹픽 두고’를 통해 ㉠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주모복거흐니 벗님나 다 오신다’를 통해 (나)의 화자가 ㉠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에서 ‘청류’를 굽어보고 ‘미’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낸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단풍에 둘러싸인 ㉣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다.

2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바위를 덮은 ‘눈’은 문산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것이지,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다. <보기>의 「송애기」와 관련한 설명에서도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⑤

① <보기>의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의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③ <보기>의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보기>의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에서

‘강학’과 ‘음풍영월’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다.

[21~26] 독서

[21~26] 융합(인문, 예술), ‘역사와 영화의 관계’

지문해설 : 이 글은 역사 연구에서 사료가 지닌 의미와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통해 영화와 역사의 관계를 설명하고, 역사 서술에 있어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고찰하고 있다. 역사가는 과거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과거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사료는 불완전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문헌 사료의 언어에 비해 도상적·지표적 기호로서의 특성을 지닌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영화를 매개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가 가능하며,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영화는 공식 역사에 가려 묻혀 있던 목소리를 발굴하고 표현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주제] 역사 서술의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

21.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영화가 도상적·지표적 기호로서 역사를 증언하는 사료의 특성을 지녔다는 점을 밝히면서,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 주는 역사 서술로서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5문단을 통해 영화가 사료의 원천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하는 대안적 역사 서술로서의 가능성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역사의 개념을 밝히지 않았고 영화와 역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지도 않았다. ② 5문단에서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의의는 확인할 수 있으나 영화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③ 4문단에서 영화의 허구성이 역사 서술에 지니는 의미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음을 제시하였지만,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한계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⑤ 다양한 영화의 유형이나 그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는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다.

22.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발굴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기존의 자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서 미시사 연구에서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료의 ‘발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도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개인적 기록인 일기, 편지 등도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문헌 사료의 언어는 지시 대상과 물리적·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이지만 영화의 이미지는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라고 밝혔다. 따라서 문헌 사료의 언어가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영화의 이미지는 다큐멘터리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호가 아닌 도상적 기호이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은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은 판소리라는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 후기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은 소설이라는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은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해 역사 서술을 보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은 설화집이라는 허구의 이야기 속 문장을 활용해 17세기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보완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은 경전의 어휘 분석을 통해 해당 경전의 일부가 편찬 시기로 알려진 B. C. 3세기경 이후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연구한 사례이다. 이는 경전이라는 공식적 사료에 대한 연구일 뿐, 허구의 이야기를 사료로 삼아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거나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해 역사 서술을 보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또는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24.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는 허구적 이야기인 영화가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가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묻혀 있던 목소리를 표현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은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계속해서 자료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자료의 사실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이러한 자료들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기억이나 구술 증언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야 비로소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관점을 가진 역사가는 영화는 허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며,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한 [A]를 비판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② ㉠의 관점을 가진 역사가는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할 때에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서사적 자료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자료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한 [A]를 비판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③ 영화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공식 역사와 같은 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의 관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3문단에 서술되어 있듯이 영화가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낼 수 있으므로, [A]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의 관점은 영화가 바탕으로 삼은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가 실제의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주목할 것이지,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을 문제 삼아 [A]를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2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제작 당시 대중의 집단적 무의식,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머스비」는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하므로, 이 영화를 통해 19세기 중엽 미국의 생활상과 집단적 무의식 등 제작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역사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집단적 무의식을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으로 설명하므로,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마르탱 게르의 귀향」에도 역사에 대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3문

단에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영화로 설명하고,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중엽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하고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했으므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1 문단에서 서사적 자료의 예로 재판 기록을 들고 있고, 미시사 연구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미시사 연구의 방식을 취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루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데, ‘결합하다’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루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단어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라는 뜻을 지닌 ‘구성(構成)하다’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만나다’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눈앞에 대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다.’라는 뜻을 지닌 ‘대면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② ‘여겨지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을 지닌 ‘여기다’의 피동형으로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라는 뜻을 지닌 ‘간주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③ ‘나타나다’는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생겨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다.’라는 뜻을 지닌 ‘대두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⑤ ‘펼치다’는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내용을 진전시켜 펴 나가다.’라는 뜻을 지닌 ‘전개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27~31] 독서

[27~31] 사회, ‘소유권의 공시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물건의 소유권 양도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유효한 양도 계약과 함께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소유권이 공시된다. 그리고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 점유개정, 반환청구권 양도도 소유권 양도 공시로 인정된다. 한편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양수인이 유효한 계약을 맺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한 경우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하지만 점

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가 인정되는 물건의 경우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의취득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가 인정되는 물건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닌데, 이는 거래의 안전보다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주제] 물건의 소유권 양도와 소유권 취득이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2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하고, 또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유권 양도의 공시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통해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방의 점유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방을 점유하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방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하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하는데, 소유권의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는 내용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생략된 정보 추론

정답해설 :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는데,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면 양수인은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동산인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도 계약이 있어야 하고,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물리적 지배를 하지 않아도 간접점유를 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지배 없이도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②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하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간접점유 역시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직접점유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점유할

수 있으므로,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피아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아노를 빌려 준다면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존재하면서 피아노의 소유자는 간접점유자가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2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자의 권리 보호보다 거래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은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본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 안전보다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의 양도가 공시되는 것은 ㉠이 아니라 ㉡이다. ③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므로 ㉠과 달리 점유로 공시될 수는 없으나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과 같은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5문단에서 ㉡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을 통해 ㉠은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 경우 소유권 양도의 공시는 등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갑과 을이 양도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금반지는 을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는 점유개정이라 볼 수 있다. 점유개정으로선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4문단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은 소유권 취득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즉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병이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을과 맺은 계약이 유효한 양도 계약이라면 계약 이후에도 갑이 금반지를 보관하더라도 양수인인 을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점유개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을은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반환청구권이 양도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②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을은 계약에 의해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갑이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금반지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 갑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을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하므로,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 반환청구권을 가진 을은 금반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문단에서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갑이 금반지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⑤ 병과 을의 계약에 의해 을은 반환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병과 을의 계약에서 양수인인 병은 양도인인 을이 금반지의 소유자라고 믿었고, 을이 금반지의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원칙에 의해 갑과 상관없이 병의 소유권의 취득이 인정된다.

3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에서 '일어나게'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의미이므로, 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에서의 '일어난'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에서 '일어났다'의 의미는 '소리가 나다'이다.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에서 '일어나게'의 의미는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이다.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에서 '일어나지'의 의미는 '어떤 마음이 생기다'이다.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에서 '일어남으로써'의 의미는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이다.

[32~34] 문학

[32~34] 고전 소설 - 작가 미상, '장끼전'

지문해설 : 「장끼전」은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장끼 타령」 등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웅치전」, 「화충전」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동물을 의인화한 우화적 기법으로 조선 후기의 인간 세태와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까투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끼가 콩을 먹다 죽는 장면이고, 후반부는 까투리가 개가하는 장면이다.

제시된 부분은 장끼가 콩을 먹고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의 한 장면이다. 장끼 가족

이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어 양식이 떨어지자 장끼는 도적놈인 서대주를 찾아가 극진히 존대함으로써 양식을 빌려 온다. 이를 두고 딱부리는 도적놈인 서대주에게 양식을 빌어 왔다고 장끼를 비난하고 자신은 서대주를 겁박하여 쌀을 추심해오겠다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서대주를 찾아간 딱부리는 쌀을 받아오기는커녕 서대주에게 결박당하고 해만 입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조선 후기 유교적 질서의 와해에 따른 신흥 세력의 부상과 구세력의 몰락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 조선 후기의 변화된 사회상과 인간 세태 풍자

32.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딱부리에 대해 소개하는 대목에서 ‘주먹뱃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와 같이 뱃, 주둥이, 끝동 부분에 이르기까지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위풍이 현양한’ 인물(딱부리)의 속성을 드러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서술자가 ‘서대주 맹랑하다’와 같이 개입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③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이나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와 같이 속담이나 옛글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일부 인물의 외적 갈등을 조성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거나 인물의 초월적 능력이 부각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공간적 배경은 협사촌의 서대주의 집과 장끼가 사는 곳인 양지촌이다. 이 두 배경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으며, 공간적 배경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3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장끼가 서대주에게 간 이유는 양식으로 쓸 쌀을 빌리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방문 목적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딱부리가 장끼가 쌀아 놓은 곡식의 연유를 듣고,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딱부리 역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구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딱부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대주가 도적질한 것을 들어 협박함으로써 쌀을 받아내는 방법을 택한 것일 뿐, 애초에 서대주의 도적질을 별로 다스리고 교화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장끼와 딱부리 모두 서대주를 ‘도적질하는 놈’, ‘미천한 도적놈’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서대주의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대주를 ‘서동지’로 존칭하며 대접하는 방식을 계획했고, 딱부리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대주를 하대하고 겁박하는 방식을 계획했다. ③ 서대주를 방문하여, 장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대주를 존대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딱부리는 처음에는 서대주를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다가 서대주에 의해 결박되어 해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자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비는’ 굴욕적인 태도로 돌변하게 된다. ④ 서대주의 거처에 당도하여 장끼는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냐고 서대주의 환심을 살 수 있게 예의를 갖추어 서대주의 집임을 확인했다. 이에 반해, 딱부리는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고 물으며 서대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시비 쥐’는 서대주를 섬기는 종이므로 신흥 부호에 해당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골을 내는 이유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딱부리가 ‘도적질하는 서대주’라고 함부로 말하며 무례한 언행을 했기 때문이지 딱부리로 대변되는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업신여겨서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양식이 떨어지자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쌀을 빌리러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장끼의 모습에서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며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②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면서 화려한 복색을 갖추고 손님을 ‘외헌’에서 맞이하는 장면은 서대주로 대변되는 신흥 부호의 호화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몰락 양반을 대변하는 장끼는 신흥 부호를 대변하는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리게 된다. 이렇게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장끼에게 또 다른 몰락 양반으로서 딱부리는 ‘간사하도다’라고 말하며 비판하는데, 이는 여전히 실리보다 양반으로서 위신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두 인물의 모습으로부터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들 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행위는, 서대주로 대변되는 신흥 부호가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만큼 향촌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위세를 떨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5~37] 현대시 - (가) 김영랑, '청명' / (나)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가) 지문해설 : 이 시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든 화자의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이 '가장 고읍지 못한 노래꾼'으로서 자연과 더불어 세계의 일부에 속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화자가 자연에 대해 '온 소리의 앞소리요', '온 빗갈의 비룻이라'고 인식하며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다고 표현한 것은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에 젖어 든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든 마음

(나) 지문해설 : 작품의 제목인 '전언'은 '말을 전한다'는 의미로, 이 시는 봄날의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초록 바람'이 전하는 말로 형상화하여 드러낸 작품이다. 특히 의인화된 대상인 '초록 바람'이 '뒷동산', '강변', '보리밭', '마을'로 이동하는 모습을 따라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서로 화답하고 조응하는 모습과 보리밭에서 김을 매던 여인의 모습을 연결하여, 봄을 맞은 세상 만물의 모습을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려 내고 있다.

[주제] 봄을 맞이한 자연의 생동감

35.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운율이 형성될 수 있다. (가)에서는 '-노라', (나)에서는 '-자'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에서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에서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는 '초록 바람'을 의인화하여 바람이 '뒷동산', '강변', '보리밭', '마을'로 이동하는 모습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에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는 봄날을 맞이한 자연의 모습과 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조응하여 '봄을 맞이한 자연의 생동감'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6.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화자는 청명한 가을날에 젖어 든 마음을 낮익은 고향을 찾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호르르’는 작은 새 따위가 날개를 가볍게 치며 날아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이다.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 표현하고 있다. ②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을 ‘햇발이 처음 쏟아오아’로 표현하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청명’이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해 표현하고 있다. ④ 봄날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라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⑤ 청명한 날의 정경에 대해 ‘아무려면 어쩐가’라고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며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7.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리고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대상의 유사성 때문인 것이지만 이들을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과 교감할 수 있게 된 것, (나)에서 화자가 ‘바람’이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 준다고 인식한 것은, 화자와 자연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관계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한 것, (나)에서 ‘솔나무’와 ‘미루나무’가 교감하는 것은, 생태계 구성원 간에 서로 소통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는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자연인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화자가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한 것, (나)에서 ‘솔나무의 속삭임’이 ‘바람’과 ‘미루나무’를 거쳐 ‘여인’, 그리고 다시 자연인 ‘정자나무’에 전해지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소통하며 유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룻’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소리와 모든 빛깔이 자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나)에서 ‘오월’에 자연의 공간인 ‘산’과 인간의 공간인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질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임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생태 공동체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8~41] 기술,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나 IMU를 사용하는데, GPS는 스마트폰의 절대 위치를 측정하며, IMU는 스마트폰의 상대 위치를 측정한다. 두 기술 모두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으므로,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위치 측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실내에서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정한다. 비콘이 보내는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근접성 기법, 삼변측량 기법, 위치 지도 기법 등이 있다.

[주제]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

38.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상대 위치를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라고 하였다. 또 2문단에서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위치가 아니다. ② 3문단에서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단말기가 인식하는 신호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5, 6문단에서 비콘 신호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이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3문단에서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라고 하였다. 6문단에서 위치 지도 기법은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해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비콘 신호의 세기를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한 후, 특정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에서 측정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비콘이 설치된 위치를 구별해

단말기가 속한 구역의 기준점을 찾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비콘은 블루투스 기반의 기술로,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낸다고 하였지만 그 신호는 비콘의 설치 위치를 알려 주는 식별 번호 등으로 GPS 신호가 아니다. 또 2문단에서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39. 인과 관계, 상관관계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해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방법은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IMU의 위치 오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IMU가 아닌 GPS라는 하였다. IMU는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와 관련이 없다. ② 2문단에서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IMU는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하며,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PS만으로는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오차를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IMU를 활용해 단말기의 상대 위치를 구한다면 오차를 줄일 수 있다.

4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6문단에서 ㉠은 단말기가 비콘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해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 이용하여 파악한 단말기의 위치는,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기준점의 위치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각 구역의 기준점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은 특정 위치의 단말기가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를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단말기가 전송한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해당 기준점을 찾는다. 따라서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야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은 기준점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하고,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한다고 6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 각 기준점별 비콘 신호의 세기를 다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비콘 신호의 세기,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4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삼변측량 기법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나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3문단에서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각 원의 반지름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로 각 원의 크기를 고려할 때, ㉠에 위치한 장애물은 단말기와 비콘 3 사이에 있기에 신호의 세기가 약해져 비콘 3이 중심인 원이 실제보다 크게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콘 3의 실제 원의 크기는 더 작을 것이고,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을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근접성 기법은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경우 근접성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 1의 위치이다. 또한 5문단에서 삼변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해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해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들의 교점이나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경우 세 원의 교점인 P가 단말기의 위치이다. ② 3문단에서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하였으며, 5문단에서 삼변측량 기법은 수신된 신호 세기를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고 하였으므로, 신호 세기가 강하면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신호 세기가 약하면 거리가 멀게 환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원의 반지름이 가장 큰 비콘 3, 비콘 2, 비콘 1의 신호 순이다. ④ 3문단에서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비콘 3의 신호 세기가 강해져 비콘 3이 중심인 원의 반지름이

작아지고, 이로 인해 단말기의 위치인 세 원의 교점이나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이 P 방향이 아닌 비콘 3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⑤ <보기>에서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비콘 2가 중심인 원의 반지름이 커지고, 이로 인해 단말기의 위치인 세 원의 교점이나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은 비콘 2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42~45] 문학

[42~45] 현대 소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남의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일을 하는 인물인 지옥을 통해 참된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지옥의 대필 행위는 말이나 글이 인간의 의도나 이념 실현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옥은 자신의 과거 상처와 실패조차도 미화하고 싶어 하는 코미디언 피문오, 세상을 자신의 방법대로 외곬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최상윤에 대한 자서전 쓰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청준이 자신의 문학적 작업을 두고 '자기 구제의 한 몸짓'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이 소설에서도 참된 자서전 쓰기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행하는 일이며, 그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참된 글쓰기의 의미

42.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 중심인물 지옥이 최상윤, 피문오와의 일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묘사하고 있다. 지옥은 자신에게 자서전 집필을 의뢰한 최상윤의 회의를 없는 확고한 신념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자서전 대필을 거절한 일 때문에 피문오와 대립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하고 있지 않다. ③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에 있지 않으며, 서술자가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지도 않다. ④ 지옥과 피문오와의 대화 상황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자 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4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피문오는 지옥에게 화를 내면서 지옥이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납득이 가게 답해 달라고 요구한다. ㉠에서 피문오는 자신이 지옥에게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까닭, 자신이 지옥의 자서전 대필 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똑똑하게 말해 주겠다고 한다.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피문오는 지옥에게 왜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캐물으면서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이 피문오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때문이라고 한 지옥의 말이 말재간을 부린 것이라며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② ㉠을 통해 피문오는 자신이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나며 지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피문오는 자신이 지옥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③ 지옥은 피문오의 행패에 기가 질려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과 같은 지경이 되었다. 지옥은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눅이 든 상태인 것이다. ④ ㉠에서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재차 물으며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

44.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지옥은 어떤 사람의 결백, 엄격한 극기가 가식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에서 없을 수 없는 후회나 의구, 사람으로서 근멸시킬 수 없는 욕망에 대해 시인하지 않는 것은 가식이자 부끄러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극기로 결백하게 사는 것이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지옥은 최상윤의 확신에 찬 신념으로부터 느끼는 압박감, 회의가 없는 신념이 맹목적인 자기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최상윤의 자서전 대필을 하지 않았다.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② 지옥은 회의가 없는 자서전은 ‘거인의 동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의식의 경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회의를 통해 의식의 경화를 경계하는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강요하며 욕박지른다. 지옥은 이런 사람의 자서전을 쓰면서 ‘밑구멍을 찢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반말 투로 작가를 욕박지르는 모습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⑤ 피문오는 자신의 양심 때문에 자서전 대필을 거부한다는 지옥의 말을 ‘알량한 양심’이라고 깎아내리고 자신은 그 두려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는 피문오의 이런 모습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45.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피문오가 ㉔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는 것이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를 고치는 일, 채권을 파는 일,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을 사들이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피문오가 자서전 대필로 돈벌이를 하는 지옥이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피문오는 자서전 대필을 상행위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고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피문오가 자서전을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지옥에게 이를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③ 피문오는 지옥을 조롱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옥에게 자신이 무식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④ 피문오는 자서전 쓰기를 권장할 것을 지옥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다. ⑤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서전 쓰기의 소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서전 대필로 돈벌이를 하면서 양심을 이야기하는 지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